

신규 전망 보고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화에 주목해야 함

2017년 11월 14일 마닐라 - OECD 개발센터에서 발간한 *2018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화가 중기에 걸쳐서 신흥 아시아 국가들(10개 동남아시아국가연합국, 중국 및 인도)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국내의 수요 회복, 지속적인 투자와 무역 정상화로 중기에 걸쳐 탄탄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의 추세에 이어, 신흥 아시아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연 성장률은 2017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강한 무역 반등과 국내 소비의 회복세로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성장률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인도의 GDP 성장률은 세제 및 통화 개혁으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부문에서의 모멘텀이 유지되고 국내 개혁이 지속되며 정부가 인프라 프로그램을 추진한다는 가정하에,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6.3%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남아시아국가들 또한 동기간에 5.2%의 강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동 보고서는 성장의 방해 요인으로 선진국들의 이른 통화긴축정책의 가능성; 무역 장벽의 전세계 확장과 더불어 지역 무역 협정의 제한적 진행상황; 그리고 민간부문 부채의 빠른 증가를 꼽는다.

OECD 개발센터장이자 OECD 사무총장의 개발 부문 특별고문인 마리오 페치니는, 연합기구의 50주년이기도 한 이번 2017년 아세안 비즈니스 투자 정상회의에서 해당 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며 "신흥 아시아 국가들은 디지털화가 가져오는 변혁의 힘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동 보고서는 별도의 장에서 기존 산업의 확장과 신규 산업의 부상을 포함해 디지털화가 신흥 아시아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그 예로 베트남의 전자제조, 소프트웨어 개발과 ICT(정보통신기술); 필리핀의 비즈니스와 지식 프로세스 아웃소싱; 그리고 중국의 모바일 결제를 꼽는다. 몇몇 국가의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포함된 ICT 서비스가 수출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 인도의 경우 서비스 수출의 최대 14.9%에 이른다. 서비스 수출에 내포된 디지털 부가가치가 주로 국내산이라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신흥 아시아 국가의 서비스 수출에 내포된 컴퓨터와 전기통신서비스의 경우 85.3%가 국내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한 접근은 내부적으로나 신흥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나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사용률은 디지털 경제에 다방면으로 참가하기 위한 전제조건인데 싱가포르 인구의 81%에서 라오스 인구의 22% 이를 정도로 그 수치가 다양하다.

동 보고서는 수년에 걸쳐 지역통합이 무역, 노동, 금융 부문에서 깊어졌다고 언급한다.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통합되고 원활한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를 위해 통합을 더욱더 촉진하는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도 강조한다.

기자들은 OECD 개발센터 아시아 담당 부서장 다나카 켄스케 (Kensuke.Tanaka@oecd.org; 전화: +33 (0)6 27 19 05 19) 또는 미디어 담당관 보크라 크리우(Bochra.Kriout@oecd.org; 전화: +336 26 74 04 03)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별 정책을 포함한 *2018 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보고서*에 대한 추가 정보를 위해서 <http://www.oecd.org/dev/asia-pacific/>을 방문하길 바란다.

보고서에 관한 정보

*2018 년 동남아시아, 중국 및 인도 경제전망 보고서*는 OECD 개발센터가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 그리고 아세안 및 동아시아 경제연구소(ERIA)와 협력하여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역 통합에 있어서 주요 정책 부문에 대한 최근 경과를 분석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 및 인도의 국가 내 구조개혁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국가별 구조정책을 포함한다.

본 경제전망 보고서는 *OECD 동남아시아 지역 프로그램*에 기여하며, 동 프로그램은 OECD 및 아세안 국가들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 모범 사례 교환 및 상호 학습 촉진을 목표로 한다.